

개성공단 방문 연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녁 못 먹었지요? 미안합니다. 좀 일찍 약속대로 시간 맞추어 와야 되는데, 김정일 위원장께서 안 보내 줘서 제시간에 못 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작부터 꼭 한번 와 보고 싶었습니다. 참여정부 와서 첫 삼을 떴기 때문에 궁금하고, 1단계의 2차, 그리고 다음다음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꼭 보고 싶었는데 대통령이 함부로 국경을 넘어서 들락날락할 수도 없어 못 왔습니다.

다녀온 사람 말만 계속 듣고, TV에서 특집을 꾸며 개성공단을 많이 소개해 주어서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 보니까 정말 감동을 느낍니다. 말로는 민족의 공동번영이다, 민족은 하나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 된 데가 별로 없거든요? 어디 가서도 하나로 행동하는 때보다는 서로 적대할 때도 있고, 서로 시비가 걸릴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력을 잘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6자회담의 장입니다. 6자 회담을 하면 우리 대표는 미국하고 항상 공조하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북측하고

공조를 무척 많이 합니다. 협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다'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는 장이 6자회담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가 말로만 하는 '남북이 하나다' 라는 것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곳이구나, 실감이 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도 많았고, 정말 괜찮은 건가, 정말 될 건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잘해 주셔서 잘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1차 본단지 분양도, BDA 같은 것이 없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갔을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원체 그때는 상황이 불투명하고 엄중해서 앞으로 못 나갔지요.

한때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 나올 때는 실제로 여러분도 좀 불안했습니까? 아니지요?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중심 딱 잡고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개성공단 문 닫아야 된다' 는 목소리가 조금 나오다가 그냥 잦아든 것이지요.

실제로 당시에는 개성공단 입주해 있는 여러 경영자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청와대에서도 한 번 만났습니다. 제가 모셔서 정말 문 닫아도 되는 건지 상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결국 입주 경영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여론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가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이 매출액의 증가 속도, 그리고 근로자의 증가 속도 같은 것이 눈부시지요. 어디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주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 온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평양 가서 페달을 한번 확 밟았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여기 일하기 위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설비 중에 전락물자 같이 문제되는 게 있어서 하나하나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정부는 사실상 또 미국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야 물품이 반입됩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것은 아직까진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것 때문에 위축되고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풀리자면 북·미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도 보셨지요? 베이징에서 6자회담이 지금 속도 있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대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도 미국에서 착수한 것으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보도가 저에 대한 건 거짓말이 많은데, 6자회담에 대한 것은 사실이 더 많습니다. 6자회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FTA도 발효될 것입니다. 발효되지 않더라도 WTO에 원산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어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FTA까지 발효되면 이제 한 번 더 가속도가 붙겠지요.

‘너희는 정치만 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빨리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다 풀겠습니다.

개성공단은 성공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력했지만 이곳에서 여러 가지 불편을 무릅쓰고 열심히 일해 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경제적으로 공단이 성공하고, 그것이 남북관계에서 평화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또 함께 번영해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순환 하면 앞으로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북측 노동자들이 주로 월급만 받고 있지만 머지않아 여기서 일하던 사람들이 협력업체로 이곳 안에서 독립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바깥에서도 독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이라는 것이 생리상 여러 가지 부품도 필요하기 때문에 외주가 많습니다. 여기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북측에서 외주를 하기 시작하고 사장이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갔을 때 공단뿐만 아니라 공단 주변지역까지 함께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인천 남동공단에 한번 갔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기업이 있어 방문했는데, 사장의 별명이 뭐냐 하면 '사장 제조기'입니다. 그 회사에서 일을 같이하던 사람들이 같은 업종을 창업하기도 하고, 또 사장이 사업을 계속 떼서 독립시켜 회사를 만들게 하고 협력해 나가면서 많은 사장들이 그 회사에서 배출됐기 때문에 사장 제조기라고 그러합니다. 결국 우리 경제라는 게 그렇게 확산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북측 노동자 사이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사장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성공하는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한반도 전체로 확산되면 우리가 정말 전쟁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전쟁 걱정하지 말라.' 해도 마음 속에 조금씩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들이 북측에 투자 안 하는 것은 다른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그런 위험 때문에 적극적으로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투자를 안 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다 해결될 텐데, 그 해결 과정에서 여러분이 바로 평화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아주 급속하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북측에 가서 경험했던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개혁·개방이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이 '개성공단이 잘되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럴 듯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북측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직접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개성공단을 남측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점이 있어서 우린 매우 못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라는 말을 좀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조심성 없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지요?

혹시나 싶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울 돌아가면, 적어도 우리 정부라도 앞으로 그런 말 써서는 안 되겠다, 이곳은 남북이 하나 된 자리이고 함께 성공하는 모범이 되는 자리이지 누구를 개혁시키고 누구를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런 점을 저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깥에서 누가 그런 말씀 하시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가 불편한 것만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화나 인터넷, 통행이 불편하면 하나하나 우리 정부가 해소하겠지만, 그것을 이른바 ‘개혁·개방’ 이라고 이름 붙여 말하진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하시고,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일방적 생각이 자꾸 얘기되어서 서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고 크게 성공하십시오. 또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월급 받고 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이처럼 기업이 확산되어 갈 때 기회가 있는 것이거든요.

몇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경제가 갑자기 좋아졌다가 곤두박질치기도 해서 이럴 때 돈 없는 사람이 제일 손해를 많이 보지요. 이른바 ‘골병든다’ 는 것이지요. 경제가 순탄하게 가야 됩니다. 너무 널뛰기하지 말고 순탄하게 가야 모두가 골고루 자기가 예측해 가면서 가는 것이지요. 순탄하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단 같은 데서 기업이 아주 빠르게 확산되고 할 때에는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계장은 과장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고, 과장은 부장될 기회가 많아지고, 부장은 또 사장 한번 될 기회가 많아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확대되어 가는 과정에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